

수능 전 마지막 실전 연습

9월 모의평가 내일 시행

전북지역 수험생 1만7547명 응시 예정
고 1~2 연합학력평가도 같은 날 치러져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오는 3일 치러진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에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7,547명이 응시한다. 재학생은 1만5,684명으로 전년도 대비 598명 증가했으며, 졸업생 등은 1,863명으로 185명 감소했다. 9월 모의평가는 시험범위, 응시자 구성과 규모, 출제경향이 수능과 가장 유사해 수험생 자신의 학업 수준과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전국 단위 시험이다.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

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성, 이 중 한국사 영역은 필수 영역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은 '공동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다.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 누리집에 공개된다. /장은성 기자

평가 결과는 30일 발표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 및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등급만 기재되며,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실시되는 고1~2 전국 연합학력평가에는 도내 107개 고등학교 1학년 1만4,691명과 2학년 1만4,854명이 응시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9월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평가로 수능 출제경향과 문항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남은 기간 수시·정시 입시 전략을 최종 보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북사대부고 체육관에서 '2025 체대입시 모의 실기 평가회'를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평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체육계열 대입 전략 수립 돕는다

전북교육청, 전북사대부고서 체대 입시 모의 실기 평가회
도내 39개 학교 130명 학생 참여... 실기 종목 중심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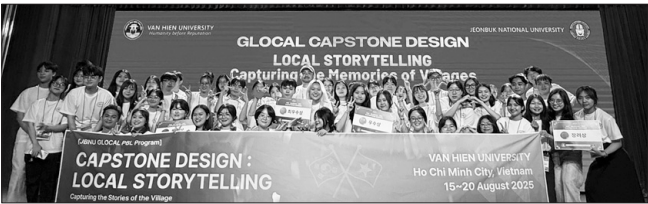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북사대부고 체육관에서 '2025 체대입시 모의 실기 평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체육계열 대입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내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평가회에는 도내 39개교 130명의 학

생이 참가해 △제자리멀리뛰기 △10m 왕복달리기 △20m왕복달리기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메디신볼 던지기 등 주요 대학 실기 종목 중심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실제 대입 실기시험장과 동일한 조건과 평가 환경 속에서 같고 닮은 실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역량을 점검했다. 평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연습만으로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실제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어 나에게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양원 문예체전강과장은 "이번 평가회는 체육계열 대학 입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충분히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평가회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수렴해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공교육 내 체육 진학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대·베트남 반히엔대
로컬 스토리텔링 공동 캠프톤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가 베트남 주요 대학과 캠프톤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이공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캠프톤디자인을 인문사회계 분야로 확장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달 14~21일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반히엔(Van Hien 대)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다. 양국 학생들은 공동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설계, 단순 학문 교류를 넘어 지역문화 발굴과 기록화 작업까지 수행했다. 특히 지난달 15일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한류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어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북대 기록관리대학원생 11명이 조장을 맡고, 반히엔대 한국어학과 학부생 43명이 조원으로 참여하는 로컬 스토리텔링 캠프톤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특히 전북대와 반히엔대에서 각각 7명이 팀캡칭으로 참여하며 학생들의 연구와 활동을 지원했다. 참가자들은 각 지역 고유 문화를 담은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이를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가 지난달 14~21일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반히엔(Van Hien 대)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함께 캠프톤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무원 교육 국제협력 강화

전북대, 9개국 공무원 교육기관장 초청 세미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일 오후 교내 본관에서 외국 공무원 교육기관장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안준호)과 공동으로 마련, 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9개국 인재원장과 국제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오봉 총장은 환영사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은 공무원 교육 리더들의 헌신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만남이 대한민국과 10개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 교육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캄보디아 국립지방행정학교

(NSLA) 무나라사 소 교장은 "공무원 교육은 국가 발전의 토대"라며 "이번 세미나가 전북대학교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그리고 참여국 간 지속적인 협력과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는 전북대 행정학과 김경아 교수가 한국의 정부 성과 평가 체계와 공공기관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기반의 국가 혁신 전략과 거버넌스 모델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전북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무원 교육 분야 실질적 협력 의제 도출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AI·디지털 전환 역량 공유 △캠퍼스 현장 소개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부서 간 경계 넘어 협력·소통을”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직원조회서... 국가정책 반영 예산 편성도 주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9월 직원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조회는 본청 전임 직원들을 환영하고,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병행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감 궐위 이후 2개월여가 지났는데 대·내외의 우려와 달리 전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준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며 “전북교육의 핵심과제는 이어가되 국가정책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구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권한대행은 “예산이나 정책 같은 큰 과제는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포괄적 마인드와 시야가 필요하다”며 “서로 협력하고 소통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9월 직원조회가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는 조직문화로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하는 토대를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이어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전주성폭력상담소 권지현

소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권 소장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장은성 기자

도내 8개 학교 100명
전국상업경진대회 참가

2~4일 경북 경주시 개최
학생들 실무역량 경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도내 8개교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대회는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올해는 더케이호텔 경주를 비롯해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에서 개최되며, 개회식은 2일 오후 4시다. 전북에서는 강호항공고, 군산여상고, 글로벌학상고, 덕암정보고, 완산여고, 원광보건고, 전주상업정보고, 진경여고가 참가한다. 대회는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

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ERP △금융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조주) △세무실무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프로그래밍 등 11개 경진 종목과 △경제공문벨 △동아리콘테스트 △창업 동아리엑스포 △대회홍보크리에이터 등 4개 경연 종목, 총 15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국대회 출전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심화캠프를 운영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고 전북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국무대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 최종합격자 도내 총 72명

교육행정 28명 포함... 4일 임용후보자 등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누리집을 통해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총 1,214명이 응시,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72명이 합격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28명, 사서 4명, 공업(일반기계) 2명, 공업(일반전기) 2명, 시설(일반토목) 3명, 시설(건축) 3명, 시설관리(일반) 14명, 운전(일반) 16명이다. 최종합격자 중에는 장애인 3명, 저소득층 1명도 포함됐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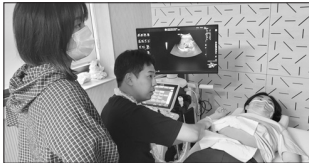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대 41명(56.9%), 30대 20명(27.8%), 40대 이상 11명(15.3%)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55세(시설관리 직렬), 최연소 합격자는 22세(운전 직렬)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4일 본청 창조나래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17~29일까지 9일간 교육연수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최종합격자 명단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안내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일반마당-시험/채용/구직-지방공무원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디지털 디톡스 캠프’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 간 소통을 되찾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김제 국립청소년비오생명센터에서 '2025년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에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4인 가족 8가정, 총 32명이 참여했다. 참가 가족들은 1박 2일 동안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대감을 형성했다. /장은성 기자



특히 가족별 '우리 집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직접 정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습관을 스스로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내년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 “스마트폰 없이 오히려 대화가 많아졌다” 등의 소감을 밝히며 만족도를 보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RISE사업단
북부 초음파 스캔 과정 성료

전주비전대학교 RISE사업단은 8월 한 달간 지역 산업체 재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북부 초음파 스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교육은 도내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직무교육으로, 전주비전대 방사선과(학과장 구본영)가 주관해 총 4개 코스, 8회차로 진행됐다. 북부 초음파의 구조와 관측 원리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병행, 수강생들의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교육은 방사선사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전 과정 주말 과정으로 운영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RISE사업단
RISE 사업설명회 열어

전주기전대학 RISE사업단은 지난달 30일 오프오프에서 사회복지상담과 1·2학년 재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RISE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전공 M.D 과정과 교양 N.D 과정 구성, 교육과정 개발·개선 사항, 향후 학사 운영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다뤄졌다. 특히 성인학습자 재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교육과정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키로 해 사업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학업 경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주기전대학 RISE사업단은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장은성 기자